

개혁 경쟁과 인문과학의 입지

안문영

충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요즘 대학가의 기상도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있다. 미처 자세를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하늘 높이 치솟는 바람기둥을 쳐다보는 대학인의 시선에는 매혹과 두려움의 상반된 감정이 얽혀있다. 유사 학과 통폐합을 비롯해서 학부제 도입을 통한 학문 분야의 재편성, 연구소의 통폐합, 대학원을 포함한 행정부서의 조직개편, 학내 전산망 설치와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학·연·산 공동 연구관 건립, 연구보조비 성과급제도 실시를 위한 교수평가의 강화, 전공이수화점 최소화와 복수전공제 활성화,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 등등, 최근 대학사회의 변화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실 지경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듯 위축된 느낌이 드는 것은 인문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과민반응인가?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대학에서 연구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개혁의 과정에서 지원부문의 심한 편중현상과 더불어 인문과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담론이 공공연하게 지배하는 분위기가 사람을 주눅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대학교육 개혁 당위론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소리는 '국제경쟁력 강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첨단 과학기술 부문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것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는 세계 각국의 추세라고 하므로, 여기에 이의는 없다. 다만 대학개혁의 지상목표를 이 부문의 집중육성에 두고, 그 실천적 방법으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거기에 맞추려고 무리할 정도로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학당국의 상황이 문제이다. 현재의 대학교육 개혁은 대학간, 학문분야간, 그리고 교수 개인간의 경쟁이라는 양

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경쟁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유익한 선의의 경쟁이 된다면 결코 염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쟁의 원리가 결과적으로 인문과학의 도태를 방임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걱정스럽다. 학부제 도입으로 인한 비 인기 전공의 뚜렷한 위축 현상이 벌써 현실이 되어버린 터에, 여기서 새삼스럽게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개혁의 명분 아래 현재 진행중인 그 모든 경쟁의 실질적 동기가 당근과 채찍의 이중성을 지닌 교육부의 '차등지원 정책'에 그 뿌리를 감추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문과학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키는 중요원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할 말이 있다. 채찍의 위협에 비해서, 당근의 양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것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개혁 경쟁을 유도하려는 교육부의 차등지원 정책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교육예산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하는 면피용 정책이라는 인상이 짙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는 대학과 대학인들의 안간힘은 '도토리 키재기' 같이 서글프기 짝이 없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예산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여건에서 인문과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경쟁의 원리와 경제성의 논리에 의존하는 대학교육 정책은 학문의 균형발전을 왜곡시킬 뿐이다. 이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교육환경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쪽이어야 한다.

인문과학 쪽도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인문과학도 기초과학이다.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 응용과학의 발전도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삶의 도구를 변화시킬 뿐이지만, 인문과학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인간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인문과학의 유용성은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것이다. 새로운 기술도 인간의 창의력의 소산이다. 한편의 시를 감상하는 것이나,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의 기회도 문화창조를 위한 소중한 '실험'이다.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한 어학실습은 그러한 실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대학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 경제성 때문에 대단위 강좌의 유혹을 크게 느낄지 모르지만, 대화를 통한 실험이 불가능한 강의는 더 큰 시간낭비일 뿐이다. 강의실 규모는 작을수록 효과적이다. 여기에 더 많은 교수인력과 경비를 투자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날뚱팔이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강사들, 그리고 상임 연구원을 둘 돈이 없는 연구소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학의 현실이다. 개혁의 대상은 이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 ■

안문영/서강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석사, 독일 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무부처장, 독일 훔볼트 재단 연구교수, 독일 바이마르 고전재단 연구교수 등을 지냈고, 제1회 한독문학 번역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라이파이젠, 상·하』(공역), 『릴케, 두이노의 비가/오르 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역서) 등이 있고, "릴케 후기시의 시적 명상의 구조"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